

**국제석유정세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월 22일 폐막된 OPEC(석유수출국기구) 임시총회가 금년 9, 10월 두달간 시한부로 채택했던 감산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국제원유가격이 연말까지 배럴당 15달러선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0월말에 야마니 사우디石油相이 전격 해임되면서 장래의 油價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야마니石油相의 해임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명실상부한 OPEC의 代父로 군림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24년간이나...

아메드 자키 야마니.

## 야마니의 退場과 OPEC 油價전략의 변화

그는 카이로大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뉴욕大에서는 비교법철학을, 그리고 하버드大 대학원에서 계속 수학, 법학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62년 불과 32세때 사우디石油相으로 발탁된 그는 美國석유재벌시대로부터 사우디 석유자원의 독립에 성공했고, 이어 73년에 OPEC를 동원, 석유과동을 주동함으로써 자원민족시대의 막을 올린 장본인이 됐다.

OPEC의 代父로 통했던 그는 석유가 지배하던 70년대에 세계경제를 주름잡았던 巨人이었다. 그런 석유거인이 물러난 것이다. 세계가 그의 퇴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향후 사우디의 석유정책방향과 또 이것이 국제원유가격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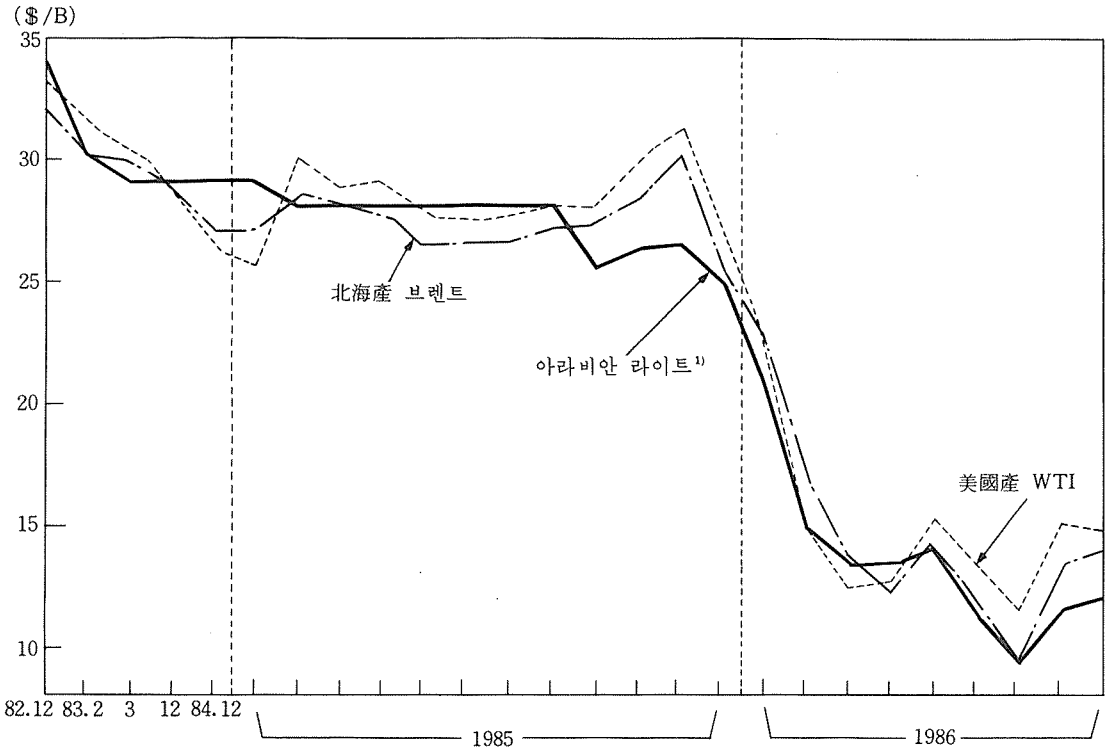
아닌게 아니라, 최근 OPEC 산유국들의 움직임은 장래의 油價불안을 더해 주고 있다. 야마니石油相의 경질을 계기로 OPEC내에서는 원유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石油수입의 감퇴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中東산유국들간에는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만회전략을 추구하면서 우선 石油收入확보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發想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증산여력이 없는 이란등 산유국도 이미 가 격重靚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가격위원회는 긴급소집으로 가격을 증시하는 OPEC의 자세는 더욱 선명히 부각되고 있다.

야마니의 후임인 나제르 신임石油相의 임명배경에 대해서도 나제르가 과거 석유 부문에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우디가 현재 추진중인 경제계획과 재정수요에 맞는 석유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제르 신임石油相은 취임하자마자 지난 10월 30일 OPEC 가격위원회의 긴급소집을 요청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오타이바石油相도 가격위원회의 早期소집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우디가 가격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제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국제原油가격 추이



(註) 1) 1985년 9월까지의 공시가격, 9월 이후는 네트백 판매가격

79차 OPEC총회에서 사우디가 제안했던 「배럴당 18달러 이상수준으로 가격을 고정화」시키려는 전략을 실현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우디의 파드국왕은 OPEC가 油價를 지금의 배럴당 14달러선에서 2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임 나제르石油相은 파드국왕의 油價인상정책에 발맞춰 이란, 알제리, 리비아등 OPEC내 강경파들의 정책인 「高油價 및 산유량억제」정책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산유량증가→가격하락→생산코스트 높은 非OPEC산유국의 도태→OPEC의 세계석유시장 장악으로 이어지는 종전의 아마니의 장기석유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산유량 감축→油價상승→OPEC결속력 강화를 꾀하는 단기석유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우디의 태도변화는 그동안 산유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희생적 양보를 거부해 왔던 사우디

의 정책적 관심이 油價의 회복쪽으로 바뀐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油價가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시기적 요인과 겹쳐 장래의 油價불안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2일 OPEC총회가 끝난 직후 국제원유가격의 동향을 보면, 대체로 배럴당 16~18달러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지난 4월 초순에 배럴당 10달러 전후까지 하락했고, 7월 하순에는 7~8달러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8월에는 16달러선으로 반등했다.

또 최근 소련, 이집트등 非OPEC산유국들이 OPEC 감산합의 및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석유수요가 증대되면서 自國産 원유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석유전문가들은 나제르 신임사우디石油相이 油價를 최소한 배럴당 18달러선에서 유지시키는 고정가격제도의 복귀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석유회사들이 서둘러 원유

국제原油가격 추이 및 전망

(單位 : \$ / B)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DRI <sup>1)</sup>	27.58	16.08	16.02	17.41	18.72	19.74	21.71
WEFA <sup>1)</sup>	28.09	13.79	14.75	16.74	18.63	21.03	23.65
Henley Centre <sup>2)</sup>	26.40	13.60	13.12	15.42	16.38	17.82	18.80

〈資料〉 DRI, European Review, Oct.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6.

The Henley Centre, Framework Forecasts for the EEC Economies, Aug. 1986.

〈註〉 1) OPEC 加重平均 수출가격 (f. o. b.) 임.

2) OECD中 6大國의 加重平均 수입가격 (f. o. b.) 임

를 대량 매입하고 있어 油價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란·이라크전쟁의 격화로 石油공급의 애로가 발생하거나 겨울철 이상한파등의 요인에 의해 油價가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低油價의 혜택을 두둑히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석유시장동향은 低油價시대가 단기간에 끝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油價상승에 따른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

/우리/말/교/실/

# 바르게 알고 씹시다

##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요사이 모임에 가면 좀 높은 분이 말씀을 하게 될 때, 〈누구누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못한 말이다. 「계시다」는 단순한 「있다」의 존대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 바랍니다〉도 〈있으시기〉가 되어야 한다.

## 촌지(寸志)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 즉 3.0303 cm이다. 거무튀튀하거나 칙칙한 마음, 낫 찌푸리며 구겨넣은 마음이 아닌 「곱고 정성스런 마음이 담긴 3.0303cm짜리 뜻의 표지」가 바로 「촌지」다. 그런데 우스운 발음은 〈촌지 좀 주셨어요?〉 〈촌지 좀 주십시오〉 하는 말이다. 「촌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는 입장에서 「한 치의뜻」을

전한다는 겸손 표시다. 그러므로 주는 쪽에서만 쓸수 있는 것이니, 받는 쪽에선 입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촌지」다.

##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비유하는 뜻을 모르는 한국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룻강아지」의 원 뜻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된 강아지 새끼」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사람 역시 적지 않다. 이는 시골 노인들이 더러 소나 개나 말같은 짐승의 나이를 셈할 때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어휘를 모르는 분들이다.

〈하룻, 이룻(두룻), 사룻, 나룻, 다룻, 여룻, 니룻, 여드룻(여둑), 아룻(구룻), 담불(나여룻)〉, 즉 「하룻강아지」는 한 살짜리 강아지로, 「하룻강아지」가 변한 말이다.